

세계정당인권의정당인공공포럼으로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나이나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 (명동동원명)IC 영수순 10분내 개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청정신제 실시
- 예약: www.hpdyashy.co.kr 0801-320-7700



홍성훈 '응답포 환호' 26일 오후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0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두산-SK의 1차전. 9회초 1사에서 두산 홍성훈이 1점 홈런을 친 뒤 기뻐하고 있다. 두산이 5-2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최준석 역전타...곰 먼저 웃었다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5-2 SK 꺾어

1년 만에 설욕에 나선 두산 베어스가 올 시즌 최고투수 김광현(20·SK)을 무너뜨리고 한국시리즈 첫 판을 승리로 장식했다.

플레이오프를 거쳐 챔피언결정전에 오른 두산은 26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벌어진 200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 1차전에서 선발투수 맷 랜들과 볼넷 이재우의 뼈어난 계투속에 대타 최준석의 역전 2타점 2루타와 홍성훈의 썩기 솔로포를 앞세워 5-2로 승리했다.

이로써 두산은 지난 해 한국시리즈 역전패를 설욕하며 2001년 이후 7년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지난 해까지 25차례 열린 한국시리즈는 1차전 승리팀이 20차례나 우승해 우승확률 80%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두산은 지난 해 한국시리즈에서 SK를 상대로 1, 2차전을 모두 이기고도 3차전부터 내리 4연패를 당해 정상 일보 직전에서 눈물을 삼켰었다.

해 시즌 다승(16승4패)과 탈삼진(150개) 1위를 차지한 김광현과 9승9패에 그친 랜들의 선발 대결은 마운드의 무게중심이 확연히 SK 쪽으로 기울어 가는 듯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실전감각이 떨어진 김광현은 5와 3분의 2 이닝동안 삼진이 4개에 그친 반면 볼넷 6개와 5안타로 3실점(2자책)한 뒤 강판돼 패전 투수가 됐으나 부친상에도 마지막 결정장에 등판한 랜들은 5와 3분의 1이닝을 3안타와 3

볼넷으로 1실점으로 막아 승리의 기쁨을 마련했다.

김광현은 초반부터 불안했다. 1회초 첫 타자 이종욱을 상대하면서 컨트롤이 잡히지 않은 듯 볼넷으로 내보낸 뒤 오재원마저 볼넷으로 출루시켜 무사 1, 2루를 자초했다.

초반 실점 위기에서 김광현은 김현수를 삼진으로 잡은 뒤 김동주와 홍성훈을 별타로 처리해 무실점으로 막았다. 2회초에도 무사 1루의 위기를 벗어난 SK는 2회말 김재현이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아치를 그려 먼저 1-0으로 앞섰다.

그러나 반격에 나선 두산은 5회초 채상병이 3루수 강승안타로 나간 뒤 보내기범트와 포수 패스트볼로 3루까지 진루했고 이종욱의 중전 적시타에 홈을 밟아 1-1을 만들었다.

6회에는 김동주와 2루타와 고영민의 볼넷

으로 2사 1, 3루의 찬스를 잡은 뒤 대타 최준석이 좌선상으로 빠지는 2타점 2루타를 터뜨려 3-1로 역전시키며 김광현을 강판시켰다.

두산은 7회에도 김현수의 적시타로 1점을 추가, 4-1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21일 만에 경기를 치른 탓에 타격감이 떨어져 산발 6안타에 그친 SK는 정근우가 좌선상 2루타로 1점을 만회했지만 두산은 9회초 홍성훈이 좌월 솔로아치를 그려 썩기를 박았다.

두산이 3-1로 앞선 6회말 1사 1, 2루에서 구원 등판한 이재우는 3분의 2이닝동안 삼진 4개를 뽑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아 팀 승리를 지켰다.

SK와 두산의 한국시리즈 2차전은 27일 오후 6시 문학구장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1차전 김양중씨 시구

○26일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는 원로야구인 김양중(78)씨가 시구자로 나선 데 이어 27일 열리는 2차전에서는 베이징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시구. 광주서중 출신인 김양중씨는 광복 직후 경남중 장태영(작고)씨와 함께 최고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 야구 붐을 조성한 원로.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3차전에서는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가, 4차전에서는 영화배우 장미희씨가 각각 시구할 예정이다.

랜들, 아버지 장례식도 못가고

○두산 베어스의 외국인 투수 맷 랜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불참하고 26일 1차전에 선발 등판해 승리를 따내는 후원을 발휘해 팬들이 큰 감동.

랜들은 삼성 라이온즈와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선발 등판해 승리투수가 된 다음날인 지난 22일 미국 시애틀에 사는 아버지가 투병 끝에 폐암으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작년 아깝게 진 SK에 승리한 이후에 미국을 찾았다고 밝혀 팀이 이를 수용.

역시! 김연아

쇼트프로그램 69.50점 압도적 1위

‘괴겨퀸’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스케이팅 아메리카’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연아는 2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 컴캐스트 아레나에서 치러진 대회 첫날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69.50점(기술점수 39.06점+예술점수 30.44점)으로 2위 안도 마키(일본·57.80점)를 11.70점이아 앞서며 가볍게 선두에 올랐다. 김연아는 27일 오전 5시부터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펼쳤다.

더블 악셀(공중 2회전반)에서 착지 실수로 손을 얼음판에 손을 짚은 게 옥에 티였지만 이번 시즌 새로운 프로그램인 ‘죽음의 무도’에 맞춘 강렬한 검은색 의상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김연아의 점프와 표정연기는 만점에 가까웠다.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2위 안도 마키와 11.70점 차이

11명의 참가 선수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출전, 첫 번째 과제인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공중 연속 3회전)부터 완벽하게 성공한 김연아는 연이어 자신의 장기인 트리플 러츠(공중 3회전)도 정확한 아웃제기 도약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김연아는 스파이럴 연기에서도 예리한 손끝의 변화와 강한 눈빛 연기로 자세를 바꿔가며 매력적인 동작으로 얼음판 위를 활주했다. 이어진 더블 악셀에서 김연아는 착지 불안으로 손을 짚었고, 순간 관중석에서는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시니어 무대 3년차를 맞는 김연아는 노련하게 레이백 스프링에 이은 플라임 스파인 연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갔고, 마지막으로 힘찬 콤비네이션 스프링으로 2분50초의 연기를 끝냈다.

키스앤크라이온에서 점수를 기다리던 김연아는 69.5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장내 방송을 통해 들려오자 깜짝 놀라고서 함박 웃음을 터트리며 쇼트프로그램 우승을 자축했다.

김연아와 우승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던 안도 역시 안정적으로 점프 과제를 끝냈지만 스태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실수로 감점을 받으면서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백조처럼

2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 컴캐스트 아레나에서 열린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김연아가 검은색에 반짝이는 보석으로 포인트를 준 드레스를 입고 성숙한 연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필라델피아 9회말 끝냈다

탬파베이 5-4 꺾어 월드시리즈 2승 1패

28년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탬파베이 레이스의 막판 추격을 힘겹게 뿌리치고 시리즈 주도권을 잡았다.

필라델피아는 26일(한국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벌어진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4-4로 팽팽히 맞선 9회말 무사 만루에서 카를로스 루이스가 끝내기 내야안타를 날려 5-4로 짜릿한 승리를 낙했다. 이로써 필라델피아는 2승1패로 한 걸음 앞서며 1980년 이후 28년만에 정상 정복에 한걸음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필라델피아는 1회말 지미 롤링스가 중전 안타, 제이슨 위스는 볼넷을 고른 뒤 폭투로 무사 2, 3루의 찬스를 잡아 체이스 어틀리의 내야땅볼로 선취점을 올렸다. 탬파베이는 2회초 2루타를 치고 나간 칼 크로퍼드가 3루 도루에 성공한 뒤 게이브 그로스의 희생플라이로 1-1을 만들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는 공수 교대 뒤 카를로스 루이스가 탬파 선발 맷 가자로 부터 우월 솔로홈런을 날려 2-1로 앞서다. 6회말에는 어틀리와 라이언 하워드 연속타자 홈런을 쏘아올려 4-1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는 듯 했다.

하지만 탬파베이는 7회초 크로퍼드가 기습 번트 안타로 살아나가고 디오너 나바로가 좌월 2루타를 터뜨려 무사 2, 3루를 잡은 뒤 후속 땅볼로 2점을 뽑아 3-4로 추격했다.

8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서 유격수 내야안타로 출루한 B.J. 업튼은 1사 뒤 2루 도루에 성공한 뒤 3루 도루까지 감행했다. 이 순간 필라델피아 포수 루이스가 3루에 악송구하자 재빨리 홈을 밟아 4-4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9회말 마지막 공격에서 필라델피아는 선두타자 펄 베툴이 몸맞는 공으로 출루한 뒤 탬파베이의 4번째 투수 그랜트 발포어가 폭투를 하는 사이 2루로 뛰었고 포수 나바로가 2루에 악송구하자 곧바로 3루까지 집주했다. 이어 타석에 나선 루이스의 타구가 빗맞아 데글데글 3루 라인을 타고 굴러갔고 이 사이 3루 주자가 홈을 파고들어 필라델피아가 극적인 승리를 낙했다.

필라델피아와 탬파베이의 월드시리즈 4차전은 2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이정수 월드컵 1,500m 금

남자 쇼트트랙의 기대주 이정수(단국대)가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정수는 26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19초92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 대표팀 선배 성시백(연세대·2분19초928)을 0.04초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 1차 대회에서 1,500m와 계주 금메달 2관왕에 올랐던 이정수는 두 개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잇달아 목에 걸면서 대표팀의 차세대 에이스로 성장했다.

남자 1,000m 1차 레이스 결승에 나선 광운기(연세대)는 4위를 차지해 아쉽게 메달을 놓쳤고 아폴로 안톤 오노(미국)는 실격했다. 반면 정은주(한국체대)는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1초639로 주앙(중국·2분21초578)에 0.061초 뒤지면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또 여자 1,000m 1차 레이스 결승에 진출한 양신영(분당고·1분30초735)은 중국에 1, 2위를 내주면서 동메달을 따냈고 정바라(단국대)는 4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이승엽 “우승 내 손으로”

세이부와 일본 시리즈 “해결사 능력 보이겠다”

‘아시아의 대포’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이 3년 만에 일본시리즈에 나선다.

지난 25일 도쿄돔에서 막을 내린 센트럴리그 클라이맥스시리즈 제2스테이지에서 주니치 드래곤스를 6-2로 꺾고 센트럴리그 챔피언 자리를 다시 확인한 요미우리는 퍼시픽리그 챔피언인 세이부 라이온즈와 일본시리즈를 벌인다.

11월1일부터 7전4선승제로 열리는 일본시리즈는 요미우리의 홈인 도쿄돔에서 2경기를 시작으로 세이부의 홈인 사이타마현 세이부돔에서 3경기를 벌인 뒤 도쿄돔에서 다시 6.7차전을 벌인다.

요미우리는 6년 만의 일본시리즈 도전이고 세이부는 2004년 이후 4년 만이다.

요미우리 5번 타자를 맡을 한국인 타자 이승엽에게는 지바 롯데 말린스 시절이던 2005년 이후 3년 만에 나서는 일본시리즈다.

이승엽은 당시 일본시리즈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4경기에서 11타수 6안타와 홈런 3방을 몰아치며 6타점을 기록해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번 시리즈도 예감은 좋다. 시즌 초반 타격 슬럼프로 1군 엔트리에서 빠지고 나서 시즌의 절반 이상을 2군에서 보냈지만 후반기 타격감을 회복해 옛 모습을 되찾았고 클라이맥스 시리즈에서 홈런 2개와 4타점을 뽑아내며 홈런포 예열을 마쳤다.

무엇보다 기대를 모으는 것은 큰 경기에서는 항상 승부를 결정짓는 한 방을 쳐주던 이승엽의 ‘해결사 능력’이다.

자신의 클러치 히팅 능력에 대해 “운이 좋다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나



보다 실력이 좋은 선수는 많다”고 겸손함을 표시하는 이승엽은 일본시리즈 진출을 확정하고 나서 “무조건 팀이 이기는 데 공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